

통찰력



Michael Kim 변호사, Law360과 함께 로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하다

2020 07 30

출판물: **Law360**

코브레 & 김 창립 변호사 Michael Kim은 Law360의 “로펌 리더” 시리즈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하여 코브레 & 김의 과거와 미래, 코브레 & 김에서 바라는 인재상, 전염병 대유행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했습니다.

Michael Kim 변호사에 따르면 코브레 & 김이 2인 사무소에서 전 세계적 로펌으로 성장한 지난 17년 간, 그리고 장래에도 시종일관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고객이 찾기 쉽지 않은” 사해행위 및 불법행위 사안의 심층적인 특화와 지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로펌과 달리 Michael Kim 변호사는 전문 분야를 확보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전문성을 성장보다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자연히 로펌 차원에서도 자신만의 전문분야 개발에 의욕이 넘치는 동시에 고객의 수요를 이해하는 감성 지능을 갖춘 변호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Michael Kim 변호사는 또한 분쟁 및 조사 분야가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지구화가 역전되고 각국 정부가 점점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취하면서 국제 분쟁과 조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chael Kim 변호사는 “삼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끝없는 헝그리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구독 필요).